

三國時代 圓錐形 垂飾에 대한 研究

김 문 자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one Shaped Pendants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Moon-Ja Kim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2002. 3. 7 접수: 2002. 10. 1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Cone shaped Pendants in old tombs of Three Kingdom States.

These Cone shaped Pendants are made of bronze and coated with gold plate or Gold. Each Cone shaped Pendants consists of a Sehwhan(細環) type or Taewhan(太環) type, a median part in the form of a several joined small globe, or circular shape, and finally a cone-shaped pendant.

Cone shaped Pendants is 5 part(A-a, A-b, B-1-a, B-1-b, B-2-b type) in according to the styles of the Sehwhan(細環) and Taewhan(太環) type and median ornament types.

A-a, A-b, B-1-a, B-1-b type was general style that was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in Kokuryo, Pacjae, ancient Silla. B-2-b type was excavated from the only Kokuryo tombs.

Key words: cone shaped pendants(원추형수식), Kokuryo(고구려), Pacjae(백제), Ancient Silla(고신라).

I. 緒 論

三國時代 圓錐形 垂飾 樣式은 보통 귀걸이 류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고분출토품에서 그 발견 에로 보아 冠帽의 垂飾이나 腰佩類 등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즉 古墳 發掘時 內棺의 被葬者 跨帶 아래에 금제 태환식 수식이 여러 쌍 착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귀걸이형의 장신구가 만드시 귀걸이로서만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착장한 장신구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신라고분들에서는 귀걸이형 장신구는 被葬者 머리 위치에서만 아니라 大形古墳의 경우 木槨部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이들 장신구는 귀걸이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매달아 장식용 드리개로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¹⁾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귀걸이로만이 아니라 垂飾 전반에 걸친 圓錐形 垂飾 양식 분류를 하고자 한다.

이들 귀걸이형 장신구들은 三國時代 裝身具중 특히 그 종류가 많은 대표적인 形態로 지금까지의 研究는 주로 타 장신구와 함께 서술되는 것이나, 또는 귀걸이 전체를 분류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冠帽나 다른 生活道具들과의 비교 연구로 古墳 編年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²⁾.

보통 垂飾들의 양식은 먼저 간단한 고리형태로만 되어 있는 單環式과 각종 수식이 달려 있는 修飾付 垂飾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리고 修飾付 垂飾은 그 처음 매달리는 부위의 형태에 따라 細環式과 太環式

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編),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서울:문화재관리국, 1985), p.70.

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中間飾의 형태에 따라 좀더 세분 할 수 있고, 또한 맨 끝에 달리는 垂飾部의 형태에 따라 心葉形이나 梔子形, 圓錐形 등으로 분류되는데 垂飾의 명칭은 주로 이 垂飾部 끝 장식의 모양에 따라 불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중 三國 모두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垂飾의 양식은 보통 心葉形 귀걸이(垂飾)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미 타 논문에서 양식 분류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圓錐形’이라고 불리는 垂飾 양식은 그 모양의 독특함으로 인해 각 發掘 報告書나 著書에서 ‘鐘形’³⁾, ‘葫蘆形[식물어름, 호리병박]’⁴⁾, ‘砲彈形’⁵⁾, ‘錐形’⁶⁾ ‘圓錐形’⁷⁾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인 圓錐形으로 명명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三國時代 여러 古墳들에서 心葉形 垂飾 樣式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으나 북한지역인 고구려 관계 연구의 미비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圓錐形 垂飾 양식을 좀 더 세분하여 그 각각의 形態 및 特徵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高句麗地域 出土品 10점, 百濟地域 出土品 3점, 古新羅地域 出土品 7점, 삼국시대 출토지 미상 1점 등 총 21점의 垂飾品들을 5종류로 분류하였는데, 先行研究⁸⁾에서 심엽형 귀걸이의 경우, 研究資料로서 高句麗地域 出土品 4점, 百濟地域은 8점, 古新羅地域은 25점, 伽耶地域은 9점 등 총 46점의 고분 출토품을 대상으로 양식 분류한 것에 비하면 우선 나라별로 그 출토예의 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귀걸이 수식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심엽형을 드는데 이는 주로 고신라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한 경우이며, 원추형 수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야지역에서는 출토예가 발견되지 않았고, 고신라지역에 비해 고구려지역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연구방법은 三國의 각 지역의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圓錐形 垂飾 樣式을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주로 古墳 發掘報告書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高句麗地域 出土品은 實物을 볼 기회가 없어 圖板만을 사용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II. 圓錐形 垂飾 樣式의 分類

원추형 수식은 양식분류에서 먼저 修飾付 垂飾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리고 修飾付 垂飾은 그 처음 매달리는 부위의 형태에 따라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中間飾의 형태와 맨 끝에 달리는 垂飾部의 형태에 따라 끝장식의 모양에 따라 그 수식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 맨처음 거는 고리가 세환식(A식)과 태환식(B식)⁹⁾으로 구별되며 태환식은 속이 빈 둥근 형태의 대롱형(B-1식)과 납작한 판금형인 것(B-2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中間飾의 형태가 透刻形態인 花籠形인 경우(a), 아닌 경우(b)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세환식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인 경우(A-a식), 花籠形이 아닌 경우(A-b식), 대롱형 태환 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인 경우(B-1-a식), 아닌 경우

2) 신상호, “耳飾考”, 梨花女大 碩士學位論文 (1986).

박영희, “귀걸이 垂飾에 관한 考察”, 梨花女大 美大 碩士學位論文 (1984).

伊藤秋男, “耳飾の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関する一試案”, 朝鮮學報 第 64 (1972).

尹世英, “古新羅·伽耶古墳의 編年에 관하여-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17號 (1974. 12).

3)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pp.84-85.

4)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p.20.

5)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p.358-362.

6) 李浩官, 韓國의 金屬工藝(서울: 文藝出版社, 1997), p.141.

7)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II(서울: 민음사, 1995), p.887.

8) 김문자, “三國時代 心葉形 귀걸이 樣式에 대한 研究”, 복식 제45호(1999.7), pp. 29-39.

9) 여기서 굽이 세환식을 A식, 태환식을 B식으로 표기한 것은 앞에서 서술한 심엽형 양식분류에서 세환식을 A, 태환식을 B로 표기했기 때문에 같은 표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함이며 다른 부위는 공통점이 없어 독자적인 표기 방법 사용하기로 한다.

(B-1-b식), 판금형 태환이면서 중간식이 화룡형인 경우 (B-2-a식), 아닌 경우(B-2-b식)의 6가지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출토품에는 B-2-a식은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는 A-a, A-b, B-1-a, B-1-b, B-2-b식의 5가지 樣式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1. A-a식

고구려 지역 황해남도 배천군 신원리 수집품인 금제품(그림 1)¹⁰⁾은 중간 장식은 花籠形으로 만들고 그 밑에 원추형에 가까운 삼각추를 붙인 것이다.

백제 지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출토 금제



<그림 1> A-a식

고구려 지역 황해남도 배천군 신원리 출토
- 고구려고고학 II, p. 886.



<그림 2> A-a식

백제 지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출토
- http://paekche.provin.chungnam.kr/ie/new_hist/index.html

품(그림 2)은 삼각형에 가깝게 구부러진 細環에 열쇠 모양의 상부판과 버들잎형의 하부판을 붙여 조화시킨 독특한 모습은 어느 출토품의 귀걸이와는 다른 모습의 귀걸이여서 주목된다. 고리에 이어지는 중간식은 누에고치 모양으로 중간 부분을 잘록하게 좁혀 투각 장식하였고 아래, 위 부분에는 금알갱이를 2단으로 누금시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맨 아래 달린 수하식은 따로 만들어진 열쇠모양의 상부판과 긴 버들잎형의 하부판을 붙여 圓錐形으로 조화시킨 독특한 모습이다. 길이는 7.4cm 정도이다¹¹⁾.

고신라지역 출토품(그림 3)은 동체의 큰 고리에 金板을 입힌 세환식으로 中間飾은 두 개의 半球形으로 상하가 만들어졌다. 두 반구형 사이에 원형 고리 일곱 개를 연달아 이어 붙였다. 垂下飾은 先端이 볼러진 圓錐形이며 상하단에 돌기가 있는 띠로서 鑲金 장식을 하였다. 제작 연대는 신라 6세기쯤으로 추정되는데 출토지는 알 수 없다¹²⁾.

고신라 지역 출토품으로 이대박돌관 소장품(그림 4)도 <그림 3>과 거의 동일 양식인데 다만 중간식에 돌기가 들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길이는 5.6cm, 두께는 2cm이다¹³⁾.



<그림 3> A-a식

고신라 지역 출토지 미상
- 한국의 미 22 고분미술

10) 최무장, *op. cit.*, p.886.

11) http://paekche.provin.chungnam.kr/ie/new_hist/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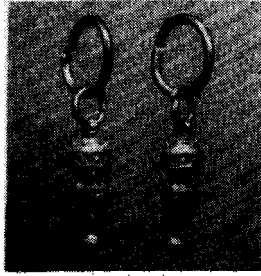
12) http://www.ocp.go.kr:8080/t_dir_search/codetree.cgi?v_code1=05&v_code2=02&v_code3=01

13) 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1=05&v_code2=02

14) 徐吉洙, "고구려 수공예품에 대하여-김영길 소장품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第5輯 (1998), p.35

15) 최무장, *op. cit.*, p.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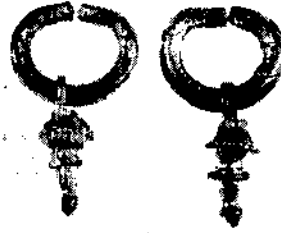
16) 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1=05&v_code2=02



〈그림 4〉 A-a식

고신라 지역 출토지 미상

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l=05&v_code2=02



〈그림 7〉 A-b식

삼국시대 출토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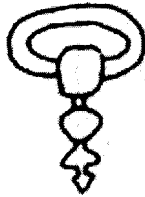
[-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l=05&v_code2=02](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l=05&v_code2=02)



〈그림 5〉 A-b식

고구려 지역 출토 출토지 미상

- 「高句麗研究」



〈그림 6〉 A-b식

고구려 지역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남파동 고분 출토
- 고구려 고고학 II, p.886

2. A-b식

고구려 지역 출토 김영길 소장품(그림 5)은 고리 부분은 구리에다 도금을 한 것인데 지름 0.23cm 짜

리 구리줄을 구부려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 도금을 해서 지름 1.3cm 짜리 고리를 만들었다. 반원형 연결고리 아래 태환식 고리처럼 생긴 넓은 고리가 이어져 있고, 이어서 마치 조롱박(원추형)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드림장식이 달려 있다. 길이 3.1cm, 3.5g¹⁴⁾이다.

고구려 지역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남파동 고분 출토 금제품(그림 6)¹⁵⁾은 같은 것이 3점 출토되었는데 세환식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이 아닌 것으로 원추형 수식을 달고 있다.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는 출토지 미상의 계명대 소장 금제품(그림 7)¹⁶⁾도 세환식에 원형의 중간식이 달리고 그 밑에 원추형 수식을 매달고 있다. 길이 3.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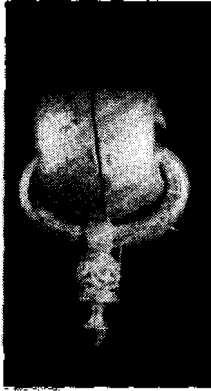
3. B-1-a식

고구려 지역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서 출토된 고리 직경 2.4cm의 금제품(그림 8)은 태환에 세환을 갖추고 세환에는 중간식이 花籠形의 중공투작구형을 갖추었으며, 그 밑으로 펜촉형의 錐形 장식을 달았다¹⁷⁾.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품은 태환에 세환을 걸고 다시 작은 고리에 花籠形의 중간식을 달고 그 밑에 원추형 수식을 달고 있다. 전체 길이는 3.5cm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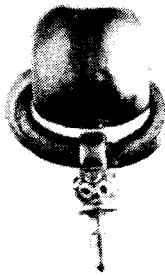
17) 李浩官, *op. cit.*, p. 141.

18) 李亨求, 韓國古代文化의 起源(서울; 까치, 1991), p.237.



<그림 8> B-1-a식

고구려 지역 평양시 대성구역 안화동 출토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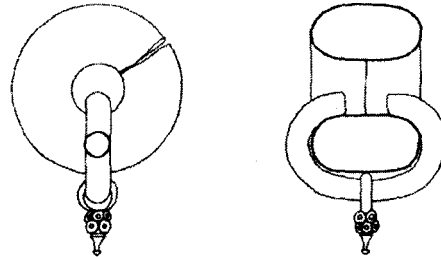


<그림 9> B-1-a식

백제 지역 충북 청원군 상봉리 강외면 출토
- 백제조각·공예도록

백제 지역 충북 청원군 상봉리 강외면 출토 금동 제품(그림 9)은 耳環部인 태환에 가늘고 타원형의 고리를 연결하고 작고 납작한 고리를 감고 중간식은 표면에 작은 고리를 상·하 엇갈리게 連接한 듯한 花籠形의 작은 空胴金球를 붙이고 그 밑에 대가리가 볼록한 압정형押釘形을 붙이고 그 밑에 銃彈形 모양의 圓錐形 垂下飾을 붙였다¹⁹⁾.

고신라 경주 황남대총 북분출토 금제 수식 其 1 (그림 10)은 태환에 연결 부분이 뚫렸고 이 고리에 지름 0.4cm의 圓形金棒을 타원형으로 구부려 만든 가는 고리를 걸고 여기에 다시 작은 금고리 10개를



<그림 10> B-1-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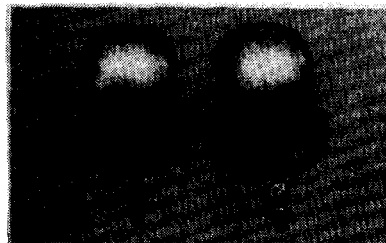
고신라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 황남대총 p.84

붙여 만든 작은 透作球體(花籠形)와 원추형 장식을 붙였다. 길이는 4.3cm이다. 其2는 前者와 거의 같은 양식으로 태환고리에 心을 다른 소재로 하여 얇은 금판으로 쓴 가는 고리를 걸고 여기에 너비가 약간 넓은 금판으로 된 작은 고리를 달아 작은 透作球體裝飾과 圓錐形裝飾을 위아래 달았다. 길이는 3.7cm이다²⁰⁾.

또 고신라 大邱 達城郡 玄風 出土 금제품 (그림 11)²¹⁾은 태환에 가는 고리를 걸고 중간식은 花籠形이며 수하식은 원추형인데 前者들에 비해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4. B-1-b식

고구려지역 중국 吉林 輯安 麻線溝 第1號 壁畫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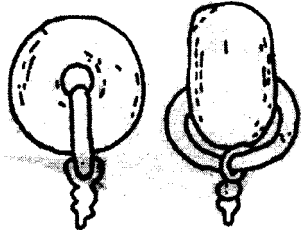
<그림 11> B-1-a식

고신라 大邱 達城郡 玄風 出土
http://www.ocp.go.kr:8080/t_dir_search/codetree.cgi?v_code1=05&v_code2=02&v_code3=01

19) http://paekche.provin.chungnam.kr/ie/new_hist/index.html

20)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pp. 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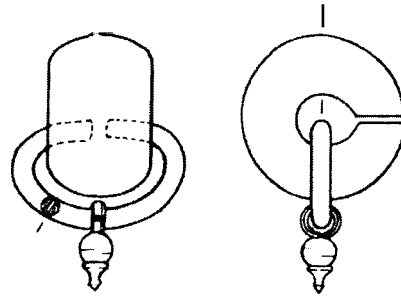
21) http://www.ocp.go.kr:8080/t_dir_search/codetree.cgi?v_code1=05&v_code2=02&v_code3=01



〈그림 12〉 B-1-b식

고구려지역 중국 吉林 輯安 麻線溝 第1號 壁畫墓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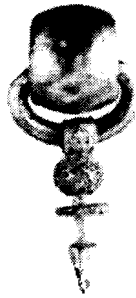
- 고구려의 고고문물, p.372



〈그림 14〉 B-1-b식

고신라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 황남대총 p.84



〈그림 13〉 B-1-b식

백제 지역 충북 진천군 만승면 회족리 출토

- 백제조각·공예도록

출토 금제품(그림 12)은 편평하고 둥근 모양의 금대롱을 구부려서 고리를 만들고 그 아래에 1개의 금줄을 구부려서 만든 둥근 고리를 달고 그 밑에 1개의 원추형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다²²⁾.

백제 지역 충북 진천군 만승면 회족리 출토 금제품(그림 13)은 태환식 아래에 鐵心에 金板을 붙인 새환이 걸려 있고 이 고리 양편에 바늘 굵기의 가는 金棒으로 逆心葉形을 만들었는데 고리의 양쪽 가장자리와 逆心葉形 周緣에는 細粒의 點線文이 둘러졌다. 이 고리 밑에 金球를 달았는데 금구 표면에는 바로 위 고리와 같은 逆心葉形文을 붙이고 그 주위에

5~6개의 작은 대잎[竹葉] 모양을 붙이고 여백에는 細金粒을 촘촘히 붙였다. 이 구체 밑에 얇은 圓板形을 고정시켰는데 원판형 주연에는 가운데에 가는 金사를 돌리고 그 아래 위에 미세한 金粒을 이어 붙였고 그 아래에 꼭지 달린 고추모양의 鍾는 상부가 6각으로 되어 아래에서 뾰족하게 끝난 六角鍾形이다²³⁾.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제 태환수식(그림 14)은 태환에 다른 소재의心に 얇은 金판을 찍은 가는 고리를 걸고 아주 작은 원추형 장식을 달았는데 前述한 〈그림 10〉과 달리 중간장식이 透作球體가 아닌, 文樣이 없는 점이 다르다²⁴⁾.

5. B-2-b식

고구려 지역 남포시 강서구역 보림리 대동 제6호 분 출토 금제품(그림 15)은 귀에 다는 고리는 폭 6mm의 순금의 얇은 판으로 만들고 거기에 타원형의 가는 고리를 꿰고 장식을 달았다. 달린 장식은 가운데를 납작하게 하고 위는 구형 밑은 원추형으로 하되 모두 하나로 된 것으로 불과 7.5mm새에 그 너비도 5mm로부터 차차 폭을 좁힌 세공품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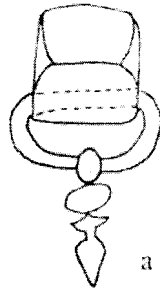
平安南道 江東郡 晚達山 第7號墳 출토 금제품 한 쌍은 판금 태환에 橢圓形의 고리를 연결하고 그 밑에 원추형을 매달은 간단한 양식이다²⁶⁾.

22) 李亨求, 趙由典, 尹世英, 車勇杰, "高句麗의 考古文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調查研究報告書 96-1 (1996), p.328.

23) http://paekche.provin.chungnam.kr/ic/new_hist/index.html

24)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pp. 84-85.

25) 전주능,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과학원출판사, 1963), pp. 199-200.



〈그림 15〉 B-2-b식

고구려 지역 남포시 강서구역 보림리 대동 제6호분 출토 - 강서구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p.200.

이상의 圓錐形 垂飾 양식들은 삼국시대 垂飾 양식들의 가장 대표적인 心葉形 수식들에 비해 그 출토되는 지역들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心葉形 수식들은 고구려, 백제, 고신라, 가야 모든 지역에서 出土되고 있는데 비해 圓錐形 수식은 그 출토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출토품에는 가야 지역에서는 그 발견예가 없고 심엽형 수식들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는 고신라 지역에서도 그 수가 매우 적다.

한편 최무장은 『고구려 고고학 II』에서 고구려 수식 양식을 설명하면서 드림장식[垂飾付]의 초기 형태는 추형이며 그것이 투각의 구슬과 심엽형 드림장식으로 변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⁶⁾. 垂飾付의 초기 양식이 원추형이라는 것은 고신라의 경우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고신라의 古墳중에서 특히 황남대총 북분은 고신라 4세기말에서 5세기 초의 것으로 비교적 타 고분들에 비해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들 원추형 수식 양식들은 고구려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있어서 심엽형 수식부 垂飾에 앞서서 유행했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Ⅲ. 結 論

이상으로 삼국시대 圓錐形 垂飾 樣式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세환식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인 (A-a식)과 花籠形이 아닌 (A-b식)의 경우 삼국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그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난다.
2. 대롱형 태환식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인 (B-1-a식)의 경우에는 삼국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특히 고구려, 백제지역 출토품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일만큼 유사하여 그 상관 관계가 주목된다.
3. 대롱형 태환식이면서 중간식이 花籠形이 아닌 (B-1-b식)의 경우에도 삼국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 양식은 前者와 달리 고구려와 고신라 출토품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
4. 관금형 태환식이면서 중간식이 화롱형인 (B-2-a식)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출토 예가 없으며, 중간식이 花籠形이 아닌 (B-2-b식)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구려 지역에서만 그 출토 예를 볼 수 있다.

즉 분류된 A-a, A-b, B-1-a, B-1-b, B-2-b식의 5가지 樣式 중 A-a, A-b, B-1-a, B-1-b식은 고구려, 백제, 고신라 모든 지역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양식이며, B-2-b식은 고구려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중 특히 B-1-a식은 고구려와 백제의 형태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B-1-b식은 고구려와 고신라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보여 그 상관 관계가 주목할만하다.

삼국시대 圓錐形 垂飾들은 心葉形 垂飾들에 비해 숫적으로 아주 적고 고구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분편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양식들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心葉形 修飾付 垂飾에 앞서서 유행했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垂飾 연구들이 주로 귀걸이류의 일부로서 주로 心葉形 垂飾에 국한되어 고찰되던 것을 연구의 범위를 넓힌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다만 자료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발굴자료의 연대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 양식별 연대 비교 고찰을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굴자료가 나오면 지속적인 보충 연구를 하고자 한다.

26) 李亨求, 趙山典, 卍世英, 申勇杰, *op. cit.*, p.329.

27) 최무장, *op. cit.*, p.887.

參考文獻

- 김기웅 (1992). *고분유물*, 서울: 대원사.
- 김문자 (1999). “三國時代 心葉形 귀걸이 樣式에 대한 研究”, *복식*, 제45호.
- 김원용외(편) (1992). *한국의 미 22, 고분미술*, 서울: 중앙일보사.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編) (1985). *皇南大塚(北墳) 發掘調査報告書*, 서울: 문화재관리국.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編) (1991). *北韓文化遺蹟 發掘概報, 北韓文化財調査書 第3冊*, 서울: 문화재관리국.
- 박영화 (1984). *귀걸이 垂飾에 관한 考察, 梨花女大 美大 碩士學位論文*.
- 박진석, 강맹산 (1999). *고구려유적과 유물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백제조각·공예도록-백제유물도록 제3집*.
- 사회과학출판사(편) (1988). *고구려 문화사, 논장*.
- 徐吉洙 (1998). *고구려 수공업제품에 대하여-김영길 소장품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第5輯*.
- 신상호 (1986). *耳飾考, 梨花女大 碩士學位論文*.
- 尹世英 (1974).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 白山學報 第17號*.
- 尹世英 (1988).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伊藤秋男 (1972). *耳飾の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関する一試案, 朝鮮學報 第64*.
- 이은창 (1978).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李鍾宣 (2000). *古新羅王陵研究*, 서울: 학연문화사.
- 李亨求 (1991). *韓國古代文化의 起源*, 서울: 까치.
- 李亨求, 趙由典, 尹世英, 車勇杰 (1996). *高句麗의 考古文物, 調査研究報告書96-1*,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李浩官 (1997). *韓國의 金屬工藝*, 서울: 文藝出版社.
- 전주농 (1963).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각지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고구려편 2*, 부산: 민족문화.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고구려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II*, 서울: 민음사.
- 韓炳三(編) (1975). *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 黃沅根 (1976). *韓國裝身具史*, 서울: 瑞文堂.
- http://www.ocp.go.kr:8080/t_dir_search/codetree.cgi?v_code1=05&v_code2=02&v_code3=01
- http://paekche.provin.chungnam.kr/ic/new_hist/index.html
- http://www.ocp.go.kr:9000/t_dir_search/cgi/new_frame.cgi?v_code1=05&v_code2=02